

사라지다

이대범(이하 이) : 2006년 로댕 개인전 이후 2년만의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강홍구(이하 강) : 이번 전시는 형식상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찍은 ‘은평 뉴타운’의 사진전이고, 내용상으로는 뉴타운 건설 과정 자체보다는 도대체 뉴타운이 어떻게 과거의 마을을 사라지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보려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입니다.

이 : 최근 사진은 아닌 거 같은데, 은평 뉴타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강 : 처음부터 뉴타운을 염두하고 계획적으로 찍은 것은 아닙니다. 2001년 무렵 불광동으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 이후에** 찍었던 사진중 일부가 2006년 로댕갤러리 개인전 <풍경과 놀다>에서 선 보인 재개발 지역을 다룬 <미키네 집>입니다.

2002년 무렵부터 은평 뉴타운 지역에 흥미가 있었어요. 구과발을 중심으로한 진관동 일대가 서울의 서북쪽 변두리라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도 많았어요. 도대체 서울 같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 독특한 분위기를 작품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면서 슬렁슬렁 찍고 있었는데, 2002년 갑자기 뉴타운이 발표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그것을 지속적으로 찍게 된 것입니다.

이 : 의도하지 않은 우연히 찍은 사진이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기록사진 비슷한 것이 되었군요.

강 : 맞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사진을 어떤 종류의 맥락에 집어넣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예요. 이 경우에는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현실이 사진의 위치를 정하고 편집해버린거죠.

이 : 그런데, 그것은 사진을 찍은 이후의 판단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과거의 사진을 현재에서 뉴타운과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촬영 당시에는 뉴타운과 관련이 없었죠. ‘우연’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대상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강 : 그래요. 그런 생각은 나중에 든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구경하는 버릇에서 시작됐어요. 사는 동네가 북한산 바로 아래여서, 북한산도 갔다가, 그리고 구과발 지역에도 갔다가 하면서 동네를 둘러봤죠. 그때는 민족지학적 태도 비슷한 것으로 접근 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라 사는 곳 근처에서 얼마든지 의미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지역은 도시의 외곽이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농촌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21세기인데도 시간이 누적된 70, 80년대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애깃거리가 있겠다 싶은 거죠.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고....

이 : 촬영 당시에는 대상 자체를 현실로 찍었는데, 지금 사진 속 대상은 사라지고 추억 혹은 기억으로 남았군요.

강 : 사진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만, 그런 요소가 강해지죠. 찍을 때는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되고, 노스텔지어(nostalgia)을 유발 시키는 요인이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감성적 호소가 있어 팬츠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 감상주의적 측면이 강화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 현재는 사라진 대상을 담은 예전의 사진은 필연적으로 추억의 영역에 편입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 특별한 선택 기준이 있었나요?

강 : 누군가 이야기 했듯이 아무리 뒤로 물러서도 전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파편만 보여 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전시의 선택 기준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곳이죠. 생활인으로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 쓰레기에서부터 산업 쓰레기까지 넘치는 공간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위치는 남아 있지만, 장소는 없고, 단지 기억만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뉴타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실과 엮어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 장소들을 봤고, 나는 이 장소들을 좋아했고, 그랬는데, 정말 가버렸다.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지게 한 힘은 알다시피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개발의 광풍에 가까운 힘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개인적 삶에 개입해서 없애버렸는지. 그것을 짧게라도 봐줬으면 했죠.

중간 제목 중간 제목

이 : 그곳의 현실을 모르고 단순히 사라진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추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촬영 당시부터 현실을 보고 찍었기 때문에 현실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강 : 은평 뉴타운 사업이 최근 용산 참사를 계기로 관심이 증폭했기 때문에 이번 작업이 단순히 감상주의 측면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일부가 무언가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변두리나 도시의 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부분의 삶이 그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변두리 혹은 도시의 변방은 어떤 의미죠?

강 : 일종의 도시 내부의 ‘내부 식민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착취인데, 변두리 혹은 도시의 변방에서 이런 착취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주민을 내쫓는 형태로 되기도 하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주인으로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고 입주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풍경 혹은 공간 자체의 파괴가 굉장히 망설임 없이 진행됩니다. 겉보기에 작업이 쇠락한 변두리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저는 내부식민지로서 변두리 위치와 입장을 풍경에 각인시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 : 2006년 개인전에서 ‘미키’라는 대상을 통해 풍경을 완성하고 바라보게 하는데요. 이번 작품에도 그런 대상이 있나요?

강 : 없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가 관찰자로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오쇠리 풍경>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태도입니다. <오쇠리 풍경>은 정말 구경꾼적 입장에서 가짜 파노라마의 성격을 강화 시켰습니다. 이후 미키네 집을 찍을 때는 <오쇠리 풍경> 때와 다르게 놀이 하면서 발언인 것이 없을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철거된 집에서 발견한 오브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내가 보는 것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 계속해서 ‘우연’이라는 어휘가 등장하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우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강 : ‘우연’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무심하게 봤던 풍경, 광경, 공간 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연으로 시작했지만, 또 그곳에 가게 되고 촬영하면서 우연을 필연적 과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우연도 결국에는 필연 아닐까요.

이 : 사라진 원주민들은 어디로 갔나요?

강 : 은평 뉴타운 지역은 그린벨트가 넓었기 때문에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었죠. 더구나 뉴타운 사업 초창기 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이득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용산과 같은 격렬한 거부는 없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은평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유치율이 15%정도입니다.

이 : 그렇다면 원주민이 제외된 상태로 또 다른 도시가 생성되는 것이군요. 촬영당시 원주민들과 사적인 관계도 있었나요.

강 :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사적관계를 배제하려 했죠. 관계를 뺏아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가 없고, 둘째로 그들을 거리를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접근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 이번 전시 작품들은 기존의 작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강 :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새롭게 시도해본다든가, 접근 방법을 바꿔본다든가, 뉴타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다든가 등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내가 이런 비슷한 작업을 계속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는 지쳤다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변두리와 개발적 폭력이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것들 모두를 담아낼 수도 없어서 여기까지 찍고 이런 종류의 작업을 마무리 해볼까 고려하고 있어요.

이 : 은평 뉴타운 작업은 언제까지 촬영한 거죠.

강 :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사실 은평 뉴타운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뉴타운 사업은 아마도 2012년 쯤 이나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이것을 계속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생활인으로서 동네를 탐사하면서 촬영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전시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진들, 둘째는 슬라이드 쇼(뉴타운 개발 이전부터 아파트가 들어선 현재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셋째는 내가 사진을 찍은 위치를 설명해주는 사적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강 : 사람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들었지만, 실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설명 혹은 소개 같은 것입니다. 뉴타운 이전의 상태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철거와 폐허가 되는 과정,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을 사람들이 한 번 봤으면 했습니다.

중간 제목 중간 제목

이 : 이번 전시 작품 중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대를 달리한 작업들이 있던데.

강 : 이전 작업들과 다른 점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연의 소산이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다보니깐, 나중에는 무너져서 없어진 경우도 생기면서, 일종의 개인적 일상 속에 개발적 폭력이 어떻게 개입하는가라는 서사가 구축되더라고요.

이 : 이번 작업에서 특정 공간이란 무엇인가요?

강 : 처음에 찍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쨌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사적 구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뉴타운 개발 이전부터 해서, 개발 이후 까지를 사람들이 보면서 서사적으로 연결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둘째는 시간을 짧은 순간에 고정시키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진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이 : 특정 공간으로 한정 하니깐, 작가의 시선도 보이지만, 그곳의 사물의 삶도 보이면서 그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003년 대안공간 풀의 전시 글에서 ‘죽음’이라는 단어

를 사용했었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강 :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대상이 사라지면서 풍경의 죽음이 보이는군요.

이 : 예전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새롭게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풍경이 만들어 졌는데, 이렇게 인위적인 새로운 풍경에 대한 생각은?

강 :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풍경에 대한 학살 아닐까요. 풍경이 서양의 경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전원지에 대한 향수에서 출현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 도시 내부에는 풍경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풍경을 죽이면서 풍경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 풍경을 발견하는 이러한 과정은 참으로 아이러니죠. 이 아이러니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풍경을 아이러니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거주는 하기 원하면서 실제로 놀고 즐기는 것은 자연과 접촉하려는 욕망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어지럽지 않은 간판의 배치,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녹지의 확장. 심지어 상업 지구에도 어떻게 하면 자연 친화적인 것을 끌어 들일까 고민하는 등 다양하게 인위적 풍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욕망이 풍경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니깐, 그것을 인위적 풍경으로 철저하게 재현하는 거죠. 인위적 풍경이란 것이 길, 나무, 물 등의 세부적 항목을 하나하나 위치를 지정해 풍경을 제어한 것이죠. 이것은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풍경도 아니고, 뉴타운 이전의 풍경도 아닌 것이죠.

이 : 인위적 풍경이 우리 삶에 은연 중에 철저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적’ ‘친자연적’이라는 말이 도처에 출몰하고 있죠.

강 : 풍경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도 한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자본의 증식에서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 작업에 사람이 보이지 않던데.

강 : 유동인구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되도록 사람이 들어간 사진은 배제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이 작업이 지향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접촉면이 너무 좁았죠. 최소한 그 동네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곳에 들어가 살거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깐요. 그래서 풍경이 말하게 했죠. 이번 작업의 제목이 처음에는 ‘사라지다’가 아니었어요, 구체적이고 사소한 것을 전면으로 내세울까 했어요. 예를 들어 질기게 남아 있다가 사라진 것들 개, 꽃, 나무, 집으로 할까 했는데,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못하면 겉보기에 너무 로맨틱하게 보일 것 같아서 배제 했습니다.

중간 제목

이 : 저도 어렸을 때, 목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무허가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목격했었죠. 그런데, 20여 년이 된 지금도 개발의 광폭함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군요.

강 : 우리나라 개발 지역은 어디나 비슷하죠.

이 : 이번 작업들이 은평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장해서 보면 한국 근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강 :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개발을 압축해 놓은 현장 같아 보입니다. 원주민은 힘이 없죠.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설계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이 : 싼 가격에 입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원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가 전혀 없는 거죠.

이 : 은평 뉴타운의 경우 한국적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지난 시기보다 더 빠른 속도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 그렇죠. 그 속도는 자본의 축적도와 비례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본이 혹은 자본과 결합한 권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이익이 커진다는 점이죠. 우려되는 것은 신도시와 재개발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평 뉴타운의 경우 계획서에는 30년 동안 개발에 소외된 지역, 전원형 신도시 뉴타운 지역이라는 수사가 붙었지만, 핵심은 일정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 시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죠.

이 : 경기도에는 명품 신도시도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강 : 명품 신도시 역시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원주민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생략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주민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결국에는 그곳도 다시 개발되어 쫓겨나야하는 지역이 되고 말죠.

이 : 당사자를 배제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군요.

강 : 그렇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개발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중간 제목

이 : 선생님 작업에서 사진의 의미는 무엇이죠?

강 : 처음부터 사진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그게 어려워요. 지금 생각하는 사진이란, 미술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제 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본다는 것만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른 방식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진의 굉장한 강점이죠. 그러기에 추상적 개념과 일반적인 지각과 사이에 표상화된 구체성인데, 여기에 근접해 있는 것이 사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시선처리의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방법과 대상과의 거리의 문제죠. <오쇠리 풍경>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다 말할 수 없다는 느낌 그리고 그곳에 대한 양가적 감정을 거리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부딪치고, 멀리가면 남의 일이 되고, 그래서 구경꾼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이번 작업에서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최근에 젊은 미술가들의 경향 중에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강 : 도시 자체가 이미 일종의 독특한 풍경이 된지 오래니깐, 흥미 있는 작업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도시의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사적인 측면이거나, 이벤트가 일어나는 장소를 다루는 경우는 많은데, 그것들을 맥락화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적어요. 사적 경험과 사회 전체의 맥락과 접촉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 요즘 작업들이 개인적 경험에 너무 치우쳐 있죠. 사적 이야기를 서술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미 사회적 존재이기에 그것들 간의 관계를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 했으면 하는데, 그런 작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눈은 있는데, 작가가 없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 : 욕심 부리자면, 사회적 자아와, 경제적 자아, 예술적 자아가 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